韓國倉庫業의 經營史的 分析

高 承 濟*

目 次

1. 漢城倉庫株式會社의 設立背景
2. 漢城倉庫株式會社의 經營實態와 末路
3. 北鮮倉庫株式會社의 行路

1. 漢城倉庫株式會社의 設立背景

1904年 2月에 日露戰爭이 勃發하여 露西亞公使가 서울을 撤收하자 마자 同年 8月에는 日本의 特命公使인 林權助와 外務大臣인 李夏榮 및 度支部大臣인 朴定陽 사이에 韓日協定書가 締結되었다. 이 韓日協定書의 第1條는 日本政府가 推薦하는 日本人을 韓國政府의 財政顧問에 任命한다는 것이다. 日本政府는 目賀田 種太郞을 韓國政府의 財政顧問에 任命하였다. 目賀田 種太郞은 同年 10月 14日부터 韓國政府의 財政運營을 獨斷的으로 處理하는 實權을 發揮할 수 있게 되었다. 目賀田 種太郞은 어떻게 韓國政府의 財政權을 左之右之하였는가. 먼저 첫 事例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日本人들은 韓國政府에 對한 支配權을 確立하기 爲한 手段으로 韓國政府를 債務者의 立場에 떨어트리고 日本을 債權者의 立場에 세우는 方法을 講究하였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日本 守備隊長인 野津 鎭武小佐는 高宗의 從弟인 李載完을 說得하여 平式院이라는 度量衡器의 製作官廳을 韓國政府안에 設置토록 하고 그 設立 및 運營 基金으로 30萬圓의 借款을 供與하였다. 이 30萬圓의 借款을 받아들이는 契約書가 作成되었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嘉會洞에 있는 李載完의 私宅에서 平式院의 總務課長인 韓相龍과 日本 第一銀行支店長인 高木 正義가 調印하였고 李載完이 立會者로 署名하였다[1]. 이것이 果然 韓國政府를 相對로 하는 借款契約書의 調印光景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903年 8月 22日은 平式院이 發足한 바로 1年 後이다. 이 때에 이르러 日本第一銀行支店은 30萬圓의 借款元金에 더하여 10餘萬圓의 利子를 合하여 40萬圓을 即刻償還할 것을 화살 같이 督促하여 왔다. 이러한 事態를 맞이하여 韓國政府는 高宗이 臨席한 御前會議에서 이 借款은 李載完과 韓相龍이가 責任져야 할 個人債에 不過한 것이라는 結論을 내렸다.

이 平式院借款問題가 結末을 보지 못한채로 日本第一銀行과 韓國政府 사이에 벌어졌던

---

* 經濟科學審議會 常任委員

1) 韓奭敎編 韓相龍君을 語る, 1941年, 49面.

紛糾가 高潮에 이르렀던 참라에 目賀田 種太郎이가 財政顧問이 되었다. 目賀田 種太郎은 財政顧問에 就任하자마자 손발이 맞는 度支部大臣으로 閔泳綺를 任命토록 高宗에 請願하였다.

目賀田 種太郎이 推천하여 度支部大臣에 任命되었던 閔泳綺조차 平式院 借款을 韓國政府가 責任질 수 없다는 見解를 품었던 것이다. 目賀田 種太郎은 閔泳綺를 解任시키고 그 後任에 閔泳喆을 度支部大臣에 任命토록 함으로써 平式院 借款을 韓國政府로 하여금 支拂토록 하였다[2].

理致에 닿지 않는 强壓的인 方法을 거듭하여 韓國政府로 하여금 40餘萬圓에 이르는 平式院 借款을 償還토록 하였다는 事實은 目賀田 種太郎이 韓國政府의 財政權을 물샐 틈 없이 掌握하기에 勝利를 거두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目賀田 種太郎은 財政顧問에 赴任한 3個月 後인 1905年 1月 18日에 新貨幣制度를 實施하였다. 韓國의 貨幣發行權을 剝奪하여 日本第一銀行의 支店으로 하여금 中央銀行의 役割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新貨幣制度가 겨누었던 野慾이었다. 새로운 鑄貨는 日本의 大阪造幣廠에서 製作되었기 때문에 新貨幣制度의 實施에 따라서 日本製白銅貨와 舊白銅貨와를 交換하는 作業이 强行될 수 밖에 없었다. 1905年 7月 1日을 期하여 韓國의 坊坊曲曲에서 日本製白銅貨와 舊白銅貨 및 葉錢을 交換하는 業務가 벌어졌다.

舊白銅貨 및 葉錢을 韓國의 流通界에서 追放하는 白銅貨交換業務가 强行되자 마자 서울의 韓國人商業界는 一朝에 걷잡을 수 없는 恐慌事態에 빠지고 말았다. 가장 심각한 打擊을 입었던 商人層은 鍾路商人들이었다. 鍾路商人이란 布木 및 日用雜貨를 去來하는 商人들이었을뿐만 아니라 皇室과 緊密한 金融的인 紐帶를 갖인 商人들이었다. 어느 意味에서는 特權的인 商人 또는 御用商人의 性格을 多分히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鍾路商人들은 商去來의 力量에 있어 全國商業界를 代辯하는 處地에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事態에 直面하자 閔泳喆은 目賀田 種太郎의 推進에 依하여 度支部大臣에 任命한 사람이기는 하나 民族的인 義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閔泳喆은 高宗의 뜻을 받들어 目賀田 種太郎에게 協議하는 바 없이 鍾路商人들의 代辯機關인 京城鍾路商業會議所議員들에게 300萬元의 救濟資金을 貸下할것을 宣言하였다[3].

이 事實을 傳해들은 目賀田 種太郎은 300萬元의 救濟資金支給을 中止할 것을 强要하였다 目賀田 種太郎의 强要에 激憤하여 마지않았던 閔泳喆은 度支部大臣의 자리를 버리기로 決心하고 高宗에게 辭表를 提出하였다. 이 消息을 傳해들은 鍾路商人들은 일제히 店舖를 閉鎖하고 大規模의 示威運動을 벌였다. 이 示威運動을 主謀하였던 中心人物이 누구였던가 記錄에 依하면 京城鍾路商業會議所의 會頭는 白潣洙였고 副會頭는 趙秉澤이었다.

鍾路商人들이 부딪치고 있었든 恐慌事態는 두말할 것도 없이 目賀田 種太郎의 어처구니 없는 新貨幣制의 强行에 起因하는것으로 斷定하고 目賀田 種太郎을 聲討하는 鍾路商民大會가 開催되었다. 이자리에는 高宗의 左待御인 崔翼軫이가 參席하였다.

이 鍾路商民大會의 經過를 모조리 聽取하였던 崔翼軫은 高宗에게 300萬元의 救濟資金支給의 緊迫한 것임을 報告하였다. 이 報告를 받고 高宗은 1905年 7月 30日 밤에 商民救濟의 詔勅을 發布하였다. 한편 崔翼軫을 京城鍾路商業會議所에 急派하여 三井物產會社가 發行한 23萬 7,000圓의 手票와 第一銀行이 發行한 6萬 3,000圓의 手票와 더불어 新白銅貨 10萬圓

2) 韓翼教編 前揭書, 62面.
3) 松本 茂盛編, 男爵目賀田種太郎, 1938年, 389面.

을 支給하였다. 京城鍾路商業會議所는 高宗으로부터 合計하여 40萬圓의 救濟資金을 받은 셈이다[4].

高宗이 發布한 商民救濟의 詔勅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들어 있다. 「目下切急之務, 貨幣不能通融, 以致布井之 困難, 이라고 高宗 스스로가 國民에게 目賀田 種太郎의 舊白銅貨 및 葉錢의 强權的인 整理事業으로 말미암아 恐慌事態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事實을 宣言하였다. 이 宣言이야 말로 高宗에 依해 發揮되었던 反日感情의 極致를 이루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高宗이 發布한 商民救濟의 詔勅을 받아 읽은 目賀田 種太郎은 烈火와 같이 憤激하였다는 것이다.

目賀田 種太郎은 自己의 處事를 批難하는 詔勅의 內容을 不遜하게도 批難하는 글원을 高宗에게 보내었다. 高宗과 目賀田 種太郎 사이에 그야말로 烈火와 같은 暗鬪가 벌어졌다.

이미 人間으로서 正常的인 心情을 상실하였던 目賀田 種太郎은 日本의 特命公使와 協議하여 高宗이 京城鍾路商業會議所에 支給하였던 手票의 發行者인 三井物產會社와 第一銀行으로 하여금 手票의 支拂을 停止하도록 하였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殘惡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다. 同年 8月 10日에 이르러 目賀田 種太郎은 三井物產會社와 第一銀行이 發行한 手票의 價額인 30萬圓을 처리하는 別途의 方案을 策定하여 韓國政府로 하여금 自己의 뜻에 同調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었다. 첫째의 方案은 15萬圓으로 倉庫會社를 設立하는 것이고 둘째의 方案은 大韓天一銀行과 漢城銀行에 15萬圓의 救濟資金을 貸下하는 것이었다[5]. 이 두가지 方案이야말로 舊韓貨의 整理로 말미암아 發生하였던 恐慌事態를 克服할 수 있는 참다운 길이라는 것이 目賀田 種太郎의 主張이었던 것이다. 高宗에 의하여 斷行되었던 조치가 보다 적절한 含蓄을 지닌 緊急救濟措置였다고 民族感情을 훨씬 떠나서 客觀的인 論理의 次元에서 斷定할 수가 있다.

어쨌든 1905年 9月 4日에 度支部令 第14號로서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의 條例가 公布되었다. 이 倉庫에 保管되는 商品에 대하여 證券을 發行함으로써 金融의 便利를 圖謀한다는 것이 漢城倉庫株式會社의 設立이 1刻을 다투는 恐慌事態의 克服策이라는 것이다. 目賀田 種太郎의 處事에 다시 憤激하여 마지 않았던 閔泳喆은 드디어 度支部大臣의 자리를 저바리고 말았다.

四方으로 後任者를 交涉하여 보았으나 누구나 그 자리에 앉는 것을 願하지 않았다. 하는 수없이 目賀田 種太郎은 스스로가 목을 잘랐던 閔泳綺에게 哀願하여 度支部大臣의 자리에 앉혔다. 1905年 11月 28日에 漢城倉庫會社의 創立總會가 目賀田 種太郎의 事務室안에서 開催되었다. 이 創立總會에서는 飯泉幹太가 支配人으로 任命되었을 뿐이었다. 日本人 支配人의 任命이 漢城倉庫會社의 成立을 위한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이라는 思考方式이 여지없이 들어나고 말았다. 12月 7日에 이르러 社長에 趙鎭泰가 任命되었으며 理事에 白寅基와 崔恩永이가 任命되었다. 그리고 監事에는 成文永이가 任命되었다.

漢城倉庫會社는 뚜렷이 株式會社의 形態로 設立되었다. 그러면 株主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모조리 鍾路商人들로서 株主層이 構成되었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어찌하여 重役陣의 構成에 있어 株主層이었던 鍾路商人들의 意思가 反映되지 않았는가. 또한 어찌하여 株式會社였던 漢城倉庫株式會社의 重役들이 官命에 의하여 任命되었는가. 따지면따질수록 限없이 수수께끼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漢城倉庫會社의 設立實態이다.

4) 松本 茂威編, 前揭書, 390面.
5) 松本 茂威編, 前揭書, 396面.

2. 漢城倉庫株式會社의 經營實態와 末路

먼저 社長에 就任하였던 趙鎭泰의 社會的 背景부터 간추려보아야 하겠다. 趙鎭泰는 世道家門의 第一號에 屬하는 豊壤趙氏 門中에서 1853年에 태어난 사람이다. 1875年에 武科에 合格하여 빠른 速度로 昇進을 거듭한 나머지 營將에서 防禦使라는 軍事要地의 駐屯司令官格의 地位에 올랐다. 그러나 1895年에 軍職을 辭任하고 株式會社 形態로 軍部被服會社를 設立하였다. 왜 趙鎭泰가 軍部의 要職을 물리치고 被服會社를 設立하게 되었는지 그 心理的 動機를 차분히 말하여 주는 記錄은 없다.

趙鎭泰는 商人의 系譜에 屬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被服會社를 運營함에 있어 鍾路의 布木商들과 密接한 去來關係를 맺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京城鍾路商業會議所의 34名으로 構成된 議員團의 한 사람이었다. 京城鍾路商業會議所는 會頭 및 副會頭, 아래에 10名으로 구성된 常議員團이 있었다. 趙鎭泰는 常議員團에는 들지 않았다.

따라서 目賀田 種太郎의 舊韓貨整理政策에 대한 示威運動의 先鋒에 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趙鎭泰가 鍾路商街뿐만 아니라 서울實業團에서 重鎭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事實에 着眼하여 漢城倉庫會社의 社長에 任命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舊韓末의 서울 實業界에 있어 趙鎭泰가 차지하였던 地位를 漢城手形組合의 副理事로 있었던 尹白南은 다음과 같이 回想하였다. 手形의 裏書限度가 5萬圓였던 만큼 5萬圓짜리 手形의 裏書란 여간해서 應하지 않았지만 當時 이 限度額發行의 約束手形에 아무 말 없이 應해준 相對者가 趙鎭泰, 白完爀, 尹致昭, 趙秉澤등 諸氏였다. 이 事實로 미루어 趙鎭泰는 巨大한 富力의 所有者였음을 알 수가 있다. 尹白南은 또한 趙鎭泰의 人品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趙鎭泰氏는 언제든지 血色좋은 溫和하고 福德이 圓滿하여 보이는 얼굴에 尺餘의 수염이 날리는 품이 아닌게 아니라 財界의 元老다웠다」는 것이다[6].

漢城倉庫株式會社는 平壤, 全州, 忠州, 大邱, 水原, 光州, 鎭南浦등지에 設置되었던 政府倉庫를 引繼하여 그 營業網을 全國的인 規模로 擴大할 수가 있었다. 漢城倉庫株式會社의 基本業務는 農產物을 비롯하여 各種의 商品들을 保管하고 預證券을 發行할뿐만 아니라 預證券을 買買하기도 하며 預證券을 擔保로 金融을 베풀기로 하였다. 따라서 漢城倉庫株式會社는 倉庫會社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보다 뚜렷하게 金融機關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7].

그러나 1906年 6月에 農工銀行이 各地方에 設立됨에 따라서 漢城倉庫會社의 金融業務는 中止되고 말았다. 따라서 漢城倉庫株式會社가 지니고 있었던 金融機關으로서의 使命도 突然히 解消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漢城倉庫株式會社를 設立하였는지 그 眞意를 다시 한번 疑心하지 않을 수가 없다.

韓日合併이 이루어지자 朝鮮總督府는 李王家의 支援 밑에서 運營되어 오던 大韓天一銀行에서 李王家의 勢力을 排除하는 조치를 斷行하였다[8]. 李王家로부터 大韓天一銀行을 빼앗은 朝鮮總督府는 1912年에 그 商號를 朝鮮商業銀行으로 바꾸었다. 그와 同時에 漢城倉庫株式會社를 朝鮮商業銀行에 合併시키고 말았다. 趙鎭泰는 朝鮮商業銀行의 頭取가 되었으며 重役의 자리도 張斗鉉, 高順成, 裵東爀, 金鎭玉, 金溶泰, 白象圭등 鍾路商人 및 地主들로 바

6) 尹白南, 「韓末皇城實業界의 巨頭群像」 週間經濟, 第7號(1952年 9月 1日號) 7面.
7) 大橋 淸三郎編, 朝鮮產業指針, 1915年, 1247—1248面.
8)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 1970年, 12面.

주고 말았다. 朝鮮總督府는 大韓天一銀行에서 李王家의 勢力을 排除하고 새로운 銀行으로 改編함에 있어 漢城倉庫株式會社의 資本과 重役陣을 逆利用하는 戰略을 適用하였던 것이다 漢城倉庫株式會社란 그 設立의 基盤을 高宗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15萬圓으로 세운 會社가 아니었던가. 高宗이 設立하였던 大韓天一銀行에서 皇室의 勢力을 排除하기 위하여 高宗이 貸下한 鍾路商民救濟金 15萬圓으로 設立運營하여 오던 漢城倉庫株式會社를 逆利用하였다는 手法은 매우 惡辣한것이었기때문에 좀처럼 忘却하기가 어렵다. 日本人들이 남긴 記錄은 朝鮮商業銀行이 1912年에 이르러 漢城倉庫株式會社를 合併한것 처럼 말하고 있으나 眞實에 가까운 表現은 아니다. 眞理에 가까운 表現이라면 漢城倉庫株式會社가 지니고 있었던 資本과 重役陣을 미천삼으면서 大韓天一銀行에서 李王家의 勢力을 몰아내고 그 商號를 朝鮮商業銀行으로 바꾸었다고 말하는 記錄이여야 할것이다.

朝鮮商業銀行은 새로히 倉庫部를 設立하였다. 그러나 이 倉庫部는 日本에 輸出되는 大豆 및 米穀등을 11月에서 約3個月間 保管하는 閑散한 狀態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漢城倉庫株式會社가 지니어 왔던 特殊한 事緣으로 말미아마 韓國의 倉庫業은 처음부터 特殊한 體質을 지니지 않을수가 없게 되었다. 倉庫業은 처음부터 銀行의 副業으로 營爲되어 왔기 때문이다.

1924年에 이르러 서울에는 7個의 倉庫會社가 13個所의 倉庫를 運營하고 있었다. 이제 7個의 倉庫會社가 어떤것이였느냐를 살피여 보는바가 있어야 하겠다. 첫째로 朝鮮商業銀行이 漢城倉庫株式會社의 倉庫이였던 蓬萊洞倉庫를 運營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禮智洞과 서울驛構內의 倉庫도 運營하고 있었다. 漢城銀行이 南米倉洞과 禮智洞에 倉庫를 設置하고 倉庫業을 營爲하였다. 韓一銀行이 南大門路 5街에서 大南倉庫를 運營하고 있었다. 京城穀物信託株式會社가 蓬萊洞 1街에서 穀信倉庫를 運營하였으며 龍山倉庫金融株式會社가 漢江路 1街에서 龍山倉庫를 運營하고 있었다. 그 밖에 日本에 本店을 두고 있었던 內國通運株式會社가 蓬萊洞 3街에 通運倉庫를 運營하고 있었으며 서울驛과 龍山驛이 構內倉庫를 運營하고 있었다고 한다[9]. 이처럼 13個所의 倉庫를 經營하였던 倉庫會社들을 살피어 볼때에 銀行이 副業으로 이룩하는 倉庫會社가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을 손쉽게 알수가 있게 되는것이다.

3. 北鮮倉庫株式會社의 行路

韓國의 銀行들은 서울에서 倉庫業의 支配權을 손안에 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地方의 倉庫業에 對하여서도 支配網을 擴大하였다. 이와같은 事實을 말하여 주는 事例로서 北鮮倉庫株式會社의 境遇를 分析의 對象으로 삼아 보는바가 있어야 하겠다.

北鮮倉庫株式會社는 1913年에 釜山에 設立되었던 北魚倉庫株式會社를 發展的으로 改編한 것이다. 1916年初에 北魚倉庫株式會社는 元山에 支店을 設置하였으나 同年가을에 이르러 元山支店을 本店으로, 釜山本店을 支店으로, 改編함과 아울러, 그 商號를 北鮮倉庫株式會社로 바꾸었다. 그리고 1920年 2月에 이르러 公稱資本 50萬圓과 拂入資本 12萬 5,000圓을 가진 株式會社로 改編되었다는것이다[10].

北鮮倉庫株式會社의 本店이 釜山에서 元山으로 옮기어졌던 理由는 무엇이었는가, 元山은 明太漁業의 中心地이었다. 江原道의 정어리, 全羅道의 右首魚와 더불어 明太漁業은 韓國의

9) 「京城に於ける倉庫業の現狀」, 朝鮮經濟雜誌, 1924年, 12月號, 54面.
10) 中村 賚良編, 朝鮮銀行會社 要錄, 1923年版, 103面.

大漁業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데 元山에서 北魚로 알리어지고 있는 明太魚의 販路를 韓國의 全域에 걸쳐서 開拓하기 爲하여서는 釜山을 輸送據點으로 利用할 수 밖에 없었다. 元山의 明太는 釜山에 輸送된 然後에 釜山에서 다시 서울, 開城, 仁川, 大田, 金泉, 大邱, 慶山, 沙里院, 新安州, 宣川, 新義州, 平壤等地로 팔리어 갔다는 것이다[11].

따라서 釜山과 元山은 일직부터 沿岸海運에 있어 가장 密接한 連結關係를 맺어왔다. 釜山과 元山이 物資交流面에서 密接한 連結關係를 맺는다는 것이 元山의 特產物이 全國市場에 販路를 開拓하는 唯一한 길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釜山의 物資가 北鮮과 間島沿海州等에 걸쳐서 販路를 開拓하는 가장 有益한 길이었든 것이다.

무엇보다도 元山의 特產物이었던 北魚(明太)의 販路를 擴張하기 爲하여서는 釜山에 倉庫를 設置할수 밖에 없다는 判斷에 따라서 北魚倉庫株式會社가 1913年에 設立되었다는것은 앞에서 指摘한바와같다. 北魚倉庫株式會社를 設立하였던 中心勢力體는 元山商人들인것 같다. 1916年에 이르러 北魚倉庫株式會社가 北鮮倉庫株式會社로 그 商號를 바꿈과 同時에 本店을 釜山에서 元山으로 옮기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보아 北魚倉庫株式會社를 設立하였던 中心勢力이 元山商人들이었던 것으로 볼수가 있게되는 바이다.

어쨌든 北鮮倉庫株式會社는 經營成果가 好調를 거듭하여온 나머지 1920年 2月에 이르러 公稱資本金을 50萬圓으로 增資하고 12萬 5,000圓의 拂入資本金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北鮮倉庫株式會社의 設立과 運營에 主導的인 役割을 다하였던 사람들은 어떠한 社會的 背景을 지니고 있었는가. 社長에 就任하였던 李明汝는 咸興에 本店을 두고 있었던 北鮮商業銀行의 取締役이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元山商人層의 代表人物이었던것으로 볼수가 있다. 北鮮倉庫株式會社의 取締役에 就任하였던 趙基周는 1919年 3月에 結成된 元山客主組合의 組合長이었다. 또한 取締役에 就任하였던 金永根도 元山客主組合員이었으며 海陸產物의 去來에 있어 으뜸가는 勢力을 누리고 있었던 巨商이었다. 그리고 李秉均도 元山의 有力한 客主이었다는 것이다[12].

이처럼 北鮮倉庫株式會社는 元山商業界의 上流層을 構成하였던 客主들에 依하여 設立되었고 運營되어 왔다. 따라서 北鮮倉庫株式會社는 元山商人層의 社會的勢力을 象徵하는 企業體이었든것으로 볼수가 있다.

그런데 1919年頃에 이르러 北鮮倉庫株式會社는 元山의 支店을 廢止하고 咸興에 支店을 設置하였다. 이때를 轉換點으로 하여 北鮮倉庫株式會社의 經營活動은 不振의 局面에 접어들게 되었다. 아마 1次大戰後에 襲來하였던 戰後, 恐慌의 餘波를 힘입은 때문이었던것으로 볼수가 있다. 1927年 7月에 이르러 資本金을 50萬圓에서 40萬圓으로 減資하였으며 다시 1929年 12月에 이르러서는 資本金을 40萬圓에서 30萬圓으로 減資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바로 이무렵에 北鮮倉庫株式會社는 그 本社를 元山에서 咸興으로 옮기게 되었다[13].

北鮮倉庫株式會社가 元山에서 咸興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李明汝를 비롯한 元山商人層은 모조리 重役陣에서 脫落하고 말았다. 그리고 咸興에 本店을 두고 있었던 北鮮商業銀行系의 人物들이 北鮮倉庫株式會社의 重役陣을 占有하게 되었다. 따라서 北鮮倉庫株式會社가 元山에서 咸興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北鮮商業銀行이 元山商人層으로부터 北鮮倉庫株式會社의 運營權을 빼앗게된 結果로 볼수가 있다. 그리고 北鮮商業銀行이 北鮮倉庫株式會社를 支配

11) 曾田 寅吉編, 朝鮮之三大港, 1916年, 183—184面.
12) 畑木 逸平編, 咸鏡南道事業と人物名, 1927年, 12—17面.
13) 中村 資良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年, 1版, 171面.

하게 된것도 銀行들이 倉庫業 을兼營하는 風潮에 따르는 것이었다고 보지 않을수가 없다.

그런데 1933年 6月에 이르러 北鮮商業銀行이 朝鮮商業銀行에 合併되고 말았다. 北鮮倉庫株式會社를 支配하여 오던 北鮮商業銀行이 朝鮮商業銀行에 合併됨에 따라서 그 運營權도 朝鮮商業銀行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되었다. 北鮮倉庫株式會社의 商號는 그냥 남아 있었으나 重役陣은 日本人一色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北鮮倉庫株式會社의 最大株主가 大昌興業株式會社이었기 때문이다. 大昌興業株式會社란 1930年 3月에 設立된 動產 및 不動產管理와 아울러 倉庫業을 兼營하는 會社로서 朝鮮商業銀行이 支配하는 것이었다. 大昌興業株式會社의 總發行株式數가 1萬株이었는데 朝鮮商業銀行이 7,350株를 所有하고 있었다고 한다[14].

이와같은 事實들로 미루어 본다면 漢城倉庫株式會社를 兼營함으로서 銀行이 倉庫業의 經營主體로 登場하게 되었던 先例를 마련하였던 朝鮮商業銀行이 咸興에 자리잡고 있었던 北鮮倉庫株式會社마저 運營하게 되었다. 따라서 銀行의 兼營業으로 이루어져가고 있었던 韓國倉庫業의 體質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져 가고 있었다는 事實을 北鮮倉庫株式會社의 末路가 말하여 주고 있는것으로 볼수가 있다.

14) 中村 資良編, 前揭書, 40面.